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SOUTHEAST ASIA

동남아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21~09/27

1. 중국-동남아시아 해상 운송 네트워크 확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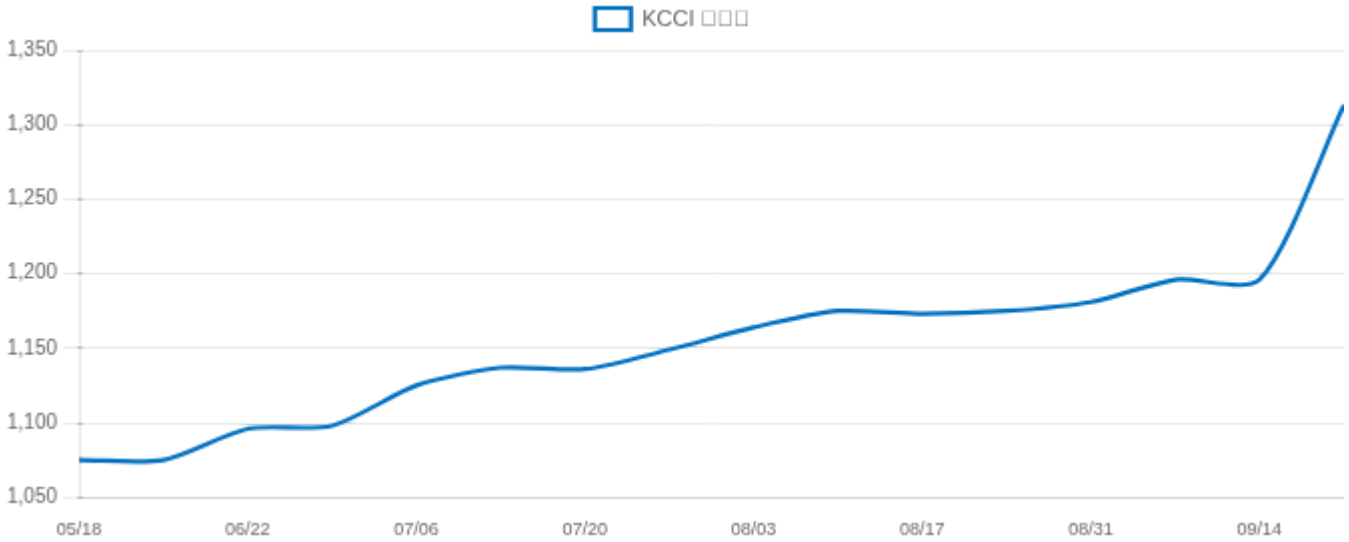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동남아 권역의 핵심 흐름은 중국-동남아시아 간 해상 물류 연결성의 확장이었다. 특히 중국-인도네시아 직기항 주간 서비스 신설로 운송 시간 단축과 네트워크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이는 역내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심화시키는 신호로 평가된다. 직기항 서비스 확대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높여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직항 노선 확대가 이어져 동남아 항만의 환적 허브 기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동남아	1,313 $/FEU	09/21	+9.8%	+11.7%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9/21

중국-동남아시아 해상 운송 네트워크 확장

>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해상 운송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특히 중국-인도네시아 직기항 주간 서비스 신설로 운송 시간 단축과 네트워크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RCL이 중국 3개 거점항(칭다오, 상하이, 난사)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주간 컨테이너 서비스 RCI05를 신설함. 이는 중국 북부, 동부, 남부를 모두 커버하는 첫 노선으로, 기존 대비 운송 시간 단축이 기대됨. 양국 간 교역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됨.

RCI05 노선은 칭다오-상하이-난사-자카르타-수라바야-싱가포르-칭다오 순으로 기항하며, 완전 로테이션에 28일이 소요됨. 투입 선박은 2,800~4,300TEU급으로, 주간 서비스임에도 비교적 중소형 선대를 활용해 항만 접근성을 높임. 싱가포르 기항은 RCL의 기존 지역·국제 네트워크와의 허브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

이번 서비스 신설로 화주들은 중국 전역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항만으로의 직기항 옵션을 확보하게 되어 환적 리스크와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게 됨. 특히 중국 남부 화물의 경우 기존 싱가포르 환적 대비 운송 일수가 크게 단축될 전망임. 인도네시아 수입 화주의 경우에도 중국산 원자재·소비재 조달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첫 출항이 202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단기적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그러나 중국-동남아 노선에서 주간 직기항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는 역내 공급망 재편과 교역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음. 향후 타 선사들의 유사 노선 신설 및 선복량 증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RCI05 서비스: 칭다오-상하이-난사-자카르타-수라바야-싱가포르-칭다오, 28일 로테이션
- 투입 선박: 2,800~4,300TEU급, 주간 서비스
- 중국 북부·동부·남부를 모두 커버하는 최초의 중국-인도네시아 직기항 노선
- 싱가포르 기항으로 RCL의 기존 네트워크와 연계 강화
- 첫 출항: 2026년 11월 8일 칭다오

전망

중국-인도네시아 간 직기항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운송 시간 단축과 네트워크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임. RCL의 신규 노선은 양국 교역 확대에 대응한 전략적 포석으로, 향후 선사 간 경쟁 심화와 서비스 차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2026년 첫 출항 이후 실제 운항 성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화주 — 중국-인도네시아 간 직기항 옵션 증가로 리드타임 단축 및 재고 관리 효율화가 가능해짐.

포워더 — 직기항 서비스 확대로 환적 화물 유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차별화된 복합운송 솔루션 개발이 필요함.

항만·선사 — 중국 주요 항만과 싱가포르 허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복량 및 기항지 최적화가 중요해짐.

참고자료: Container News, RCL, 중국-인도네시아 주간 서비스 신설…북·동·남부 커버 (검색일: 2026-09-27)